광전연, 종합정책연구기관으로 재도약

박재영 원장 취임 4개월만에 혁신방안 마련

효율적 조직 개편·성과연봉제 엄격 적용 등

지역 싱크탱크인 광주전남연구원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성과연봉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의 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연구원 통합 이후 광주·전남의 미래 비전 제시, 중앙정부 공모사업 및 프로젝트 대응, 지역 상생 방향 설정 등에 있어서 미흡했다는 평가에 따라 지난 2월 취임한 박재영 원장이 이를 주도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23일 "연구, 조직, 인사, 평가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방안을 제시하고 광주·전남의 미래와 시도민의 행복을 함께하는 종합정책연구기관으로의 재도약을 선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2월 25일 박재영 제4대 원장 취임 직후 혁신 TF팀을 구성하고 2개월의 작업 끝에 자체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혁신방안은 '시도민이 공감하는 정책개발' 등 4대 전략목표와 '미래가치와 현장수요 응답하는 정책연구 강화' 등 8대 주요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연구원은 핵심과제별 세부 사업과 사업별 실행 로드맵을 담아 '광주전남연구원 발전종합계획(2020~2023)'을 추진한다. 박 원장의 임기동안 추진해야 할 과제를 담은 것이다.

혁신 방안은 지역의 핵심의제와 현안에 대한 정책 대응력을 높이고, 지역의 미래 비전 제시와 상생을 위한 기획 및 전략 연구를 강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혁신과제를 효과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재편도 함께 이루어진다. 연구기획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기획관리부'를 신설하고, 정책환경변화와 연구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개 연구실을 융복합형 연구부서로 재편한다. 또 시·도의 핵심정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각 연구실에 '블루이코노미지원연구센터', '인공지능지원연구센터', '지역상생지원연구센터', '인구정책지원연구센터', '섬발전지원연구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3단계인 연구직들의 직급체계를 5단계로 확대하고 성과연봉도 한층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성원의 연구 및 직무역량도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구물의 질적 신뢰도 제고를 위해 연구 유사도 점검시스템을 새로 도입하고, 개인중심의 연구보다 공동협력연구가 활성화되도록 평가체제도 개편한다.

박재영 원장은 "성과 우수자에 대해 포상을 확대하고 부진자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징계하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그동안 시·도의회와 지역민들이 강조해 온 시도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원의 조직, 인사, 평가 체제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통합 5주년을 맞아 오는 29일 오전 연구원 상생마루에서 전체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비전과 CI를 선포하고, 새출발과 재도약을 다짐하는 행사를 갖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일시불 지급

5월 초까지 지역상품권으로…골목상권 조기 회복 기대

전남도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어민 공익수당을 5월 초까지 모두 지급한다.

23일 전남도는 따르면 당초 농어민 공익수당 60만 원을 오는 5월과 10월에 나눠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전남도내 22개 시·군 중 대상자 선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장흥군을 시작으로 전남 11개 시·군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개시했으며, 나머지 11개 시·군도 오는 5월초까지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최근 지급을 개시한 진도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농어민 편의를 위해 지역농협과 합동으로 마을을 직접 방문해 배부하고 있다. 실제로 진도 군내면의 한 농민은 1만원 상품권 60장이 든 봉투를 받으며 "어려운 시기에 농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지역사랑상품권을 나눠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며 "전남도민으로서 매우 뿌듯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지역상가도 활기를 찾아 가는 분위기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시·군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가계 운영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농어민의 지역화폐 사용에도 불편이 없다. 농약판매점을 비롯 식당, 미용실, 주유소 등 농어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업종으로 가맹점이 확대돼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을 이달 일시불로 지급키로 결정한 후 신속한 후속 조치로 지역화폐 발행을 완료했다"며 "농어민들이 받은 지역화폐가 빠른 시일 내 사용돼 위축된 골목상권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김정은 '건강이상설'에 정부 "특이 동향 없다" 일축

정부는 23일 최근 불거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관련 "북한 내에 특이 동향이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북한 매체를 지켜보고 있는데 정상 간 서신 교환, 감사나 생일상 전달이 이뤄지고 있다"며 "일상적인 업무가 시행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는 김 위원장이 자취를 감춘 이후에도 각국 지도자와의 축전 교환이나 고령자에 대한 생일상 전달, 해외동포 장학금 지원 등 간략한 동정을 연일 전하고 있다.

중앙통신은 지난 22일에도 김 위원장이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보낸 김일성 주석의 생일 축전에 답전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인 지난 15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은 데 대해 "이례적인 건 사실"이라면서도 "김정일 집권 시기에 태양절을 계기해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것은 3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정일 위원장이 집권 기간 부친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것은 2000년, 2002년, 2008년 단 3차례다.

이 당국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특이동향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하루 두 번 시험 통화를 지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폴란드 교민들이 23일 오후 임시항공편을 이용,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언제나 유행 가능…건강관리 중요

신규확진자 6일째 10명 안팎…총 1만702명

방역당국이 코로나19를 감기에 비유하며 앞으로 재유행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또 재유행을 대비한 개인별 건강관리도 중요하다며, 고위험군인 흡연·비만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세계적인 유행이 지속되는 한, 영원히 국경을 봉쇄하지 않는 한 코로나19는 언제든 세계적으로 유행이 가능하고 새로운 감염원은 지속적으로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세계보건기구(WHO)는 물론 미국의 방역당국자들도 유행이 다시 올 가능성에 대해 계속 언급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코로나19가 많이 발생한 네덜란드에서 항체가 형성된 인구 비율이 3%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외국과 비교할 때 한국은 인구 대비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항체 형성률 역시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유행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정 시기에 찾아오는 감기처럼, (코로나19의) 유행은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는 감염돼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증상 전에 전파되기 시작하는 점, 환자 대부분이 경증이라는 점, 상대적으로 낮은 치명률, 상대적으로 높은 기초재생산지수(전파력) 등을 들어 "코로나19는 세계적인 팬데믹을 일으키기에 최적화된 특성을 골고루 갖춘 바이러스"라고 표현했다.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일 연속 10명 안팎을 유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3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0시보다 8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8일 18명으로 10명대로 준 뒤 19일 8명, 20일 13명, 21일 9명, 22일 11명에 이어 이날 8명까지 5일 연속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광주 30명, 전남 15명 등 총 1만702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총 240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취약계층에 마스크 11만장 추가 지원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배부

광주시는 23일 "코로나19 취약계층과 일선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11만장을 추가 지원했다"고 밝혔다.

시는 식약처 승인을 받은 중국 의료용 마스크 10만장과 중국 협약도시 옌청에서 기증한 마스크 1만장 등 11만장을 긴급생계비 지원을 담당하는 행정복지센터, 무료급식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역재활시설, 자가방문서비스, 장애인재활병원, 감염병 의료기관 종사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등에 지원했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외국유학생, 다문화가정, 노인·장애인, 감염병 종사자, 방역요원, 대중교통운수 종사자, 교통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보건용 마스크 22만장을 지원한 바 있다.

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배부할 계획이다.

김경미 광주시 안전정책관은 "사회복지 취약시설과 감염병 종사자 등은 외부출입이 쉽지 않은 여건에서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가 빠른 시일 내 종식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되는 마스크 쓰기 생활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호 생태원·우치공원 동물원 재개방

예방수칙 준수 확인 후 입장

코로나19 여파로 잠정 폐쇄됐던 광주호 호수생태원과 우치공원 동물원이 두 달여 만에 다시 문을 연다.

광주시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결정에 따라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호수생태원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우치공원 동물원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5월 5일 '어린이날' 등에 방문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단 감염 우려 등을 감안해 5월 6일부터 개방하기로 했다.

호수생태원은 개방에 앞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대한 방역작업에 나서는 한편 주출입구를 한 곳으로 제한하고, 탐방객의 체온을 측정한 뒤 마스크 착용자에 한해 입장을 허가한다.

또 탐방객이 예방수칙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에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호수생태원 내부에도 안내요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광주 시민의 숲 야영장과 사직공원 전망타워는 5월 6일 이후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시점에 맞춰 운영 재개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공장부지 매매" (급 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 공장용지 14,916.9㎡, 건물 998㎡(H빔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 설치(건물 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시설 구비
■ 건물 일부 임대 중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약 700㎡)
■ 매월 4백만원 이상 수입(임대료 및 태양광 수익)
태양광은 대출 없고 순수익 임

※ 매매가 25.5억 ※

인 하 건 설(주)
010-3605-0214
062)655-4840

해산 및 채권 제출공고(2차)

당 회사는 2020년 3월 16일 임시주주 총회에서 해산 결의되었으므로 당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이는 공고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당 회사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주식회사 금강우드메탈
대표이사 박 명 숙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매정1길 93
청 산 인 박 명 숙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김재현(710313-XXXXXXX)
- 최후주소 : 전남 보성군 보성읍 예동길 22
- 등록기준지 : 전라남도 보성군 웅치면 웅치내동길 19의 2

피상속인 망 김재현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0느단10076호로 신청하여 2020년 4월 16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4월 24일

- 상속인 : 1.김상희(000411-XXXXXXX)
순천시 안산길 5, 104동 702호
(연향동, 호반리젠시빌)
2.김민정(041201-XXXXXXX)
순천시 안산길 5, 104동 702호
(연향동, 호반리젠시빌)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현주
- 신고기간 : 2020. 4. 24. ~ 2020. 7. 3.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1.김상희의 주소

주식분할로 인한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0년 04월 19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1주의금액금5,000원의 주식을 분할하여 1주의금액 금1,000원의 주식5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구주권을 가진 주주는 이 공고의 게재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구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4월 24일

주식회사 서화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순광로 234-16
공동대표이사 서용균
공동대표이사 서왕식

산행안내

5월2일(토)

▲광주금당산악회 5월2일(토) 여수 천혜의섬 연도 소리도 동백꽃 팔봉산 트래킹, 봉선동 롯데슈퍼앞 03:10, 진월동 식자재마트앞 03:20, 염주체육관 정문 03:30, 한국병원앞 03:40, 문예회관 정문 육교밑 03:50, 비엔날레 주차장 입구 04:00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향구독 220-0550